

UR협상과 국내축산업의 전망

김 한 응
축산신보기자

미흡한 농촌투자로 인해 낙후성을 변치 못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가시화 되가고 있다.

이미 작년말로 협상시한을 넘긴채 협상 참여국간의 이해조정으로 인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UR농산물협상은 빠른 시일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GATT의 여덟번째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는 80년대 초반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EC확대통합움직임을 비롯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동남아시아국가간의 경제협력강화 등 세계무역질서가 GATT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벗어나 점진적으로 지역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자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에 의해 세계무역구조 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UR협상중 농산물협상은 협상총괄기구인 TNC(무역협정위원회) 산하 15개 협상분야중의 하나로, 세계 농산물 교역환경의 악화로 시작되었다.

세계농산물 무역구조는 70년대초 소련을 비롯한 일부 동부유럽국가들이 자국내 부족 농산물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면서 세계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2, 73년 연이은 세계적인 농산물 흉작으로 식량공황을 유발, 국제 곡물

가격을 엄청난 가격상승과 함께 무기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세계각국은 농축산분야를 자주적, 안보적차원에서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농업생산증대를 장려키 위해 농업육성지원책(가격지지, 생산보조금) 및 각종 수입제한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작금에 이르러서는 농산물 생산과잉협상마저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 과잉생산국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기위해, 과다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자까지 증가하는 사태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세계농산물 시장을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무역질서의 혼란으로 통산마찰이 심해졌고,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EC, 케인즈그룹등을 농산물교역 질서의 개선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GATT의 체약국 각료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텔 에스테」에 모여 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개시선언과 함께 협상의 목적 및 일반원칙, 보호주의의 동결 및 철폐, 협상대상등을 밝힌 「푼타 텔 에스테」선언문을 채택, 그동안 GATT체제안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어도 농산물분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케 된 것이다.

농산물협상은 지난 87년 2월부터 89년말

까지 17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돼 왔으나 협상그룹국간의 특수한 입장과, 국내외의 상황,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협상 각국간의 시각차이로 협상의 주요의제인 보조금 철폐 및 협상대상으로서의 장단기 조치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였다.

그후 1990년 7월 농산물 협상위원회 「드류」의장에 의해 농산물협상초안이 제시돼 협상 윤곽이 구체화 기시화되었으나 이 또한 주요골격인 국내보조, 국경보호조치, 수출경쟁 등 4대요소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협상의제인 협상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국내보조-가격지지, 직접지불, 생산요소에 대한 각종보조 등 농업에 대한 모든 국내의 보조를 뜻한다.
- ▲ 국경보조-모든 비관세장벽 철폐, 모든 교역 생산물을 관세화 함으로써, 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를 뜻한다.
- ▲ 수출경쟁-국제 농산물시장질서의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출보조금의 삭감과 공정한 수출시장 질서의 회복이다.
- ▲ 비교역적고려사항(NTC)-단순한농산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식량보안, 국가전체의 고용수준의 유지, 국토의 균형적 발전, 환경보호등 비경제적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것.

이렇듯 UR협상을 통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볼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농업기반은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보호조치에 대한 비중이 상당함을 감안할때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비관세조치는 관세화 시킴으로써 철폐하고,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GATT에 양허하며, 현재 남아있는 수입제한품목을 모두 자유화하여 관세로 전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액은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간내에 감축해 나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나 농산물가격과 연계되는 모든 국내 농업보조를 합의 기간내에 감축해야 함에 따라,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농업구조는 시장가격 지지제도(이중 가격제),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 생산요소 및 유통비용감축을 위한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이다.

따라서 이번 UR협상내용중 허용되는 보조정책도 재해구조 및 작물보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를 위한 보조 및 최저생계를 위한 국내원조뿐이다.

따라서 상당기간의 개방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 농축산물 시세 변화가 국내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 파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농업투자보조의 폐지에 따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농기기 및 시설보안을 위한 자금의 제한으로 국내 농촌의 발전은

정체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에 의한 전문화의 방향으로 농업생산체제로 전환토록 유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축산물의 가격지지 보다는 생산구조 및 기반조성에 관한 보조로 전환 최소의 적정규모유지를 통해 인건비 절감, 생산비절감 등을 추진토록 계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성이 없는 소득보전 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확대시켜 일률적으로 편중돼온 이익의 재분배를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개진되어온 농축산업의 활로는 부업형 축산형태에서 탈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집단계열화 사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

다.

이와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략축종의 선택 지원이다.

국내 농축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시유 부분이다.

또한 일본의 화우고기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육질의 차별화와 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

UR협상은 전례가 없는 농업개혁과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계에 관한 협상이니 만큼 타결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모든 제약국들의 농축산업분야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농축인들이 안고 있는 이 과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양측인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이 난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本會委囑</p> <p>韓國野生動物病院</p> <p>院長 金 璨 圭</p> <p>서울·恩平區 大棗洞 二二〇—三二</p> <p>電話 .. (事) 三五三—六一〇六 (自) 三五五—四三〇一</p>	<p>本會委囑</p> <p>野生動物病院</p> <p>院長 成 裕 錫</p> <p>서울·江東區 明逸洞 三二二—四二二</p> <p>電話 .. (事) 四八六—三四二八 (自) 四七一—二一四五</p>
--	---

◇ 해외양육 ◇

세계 양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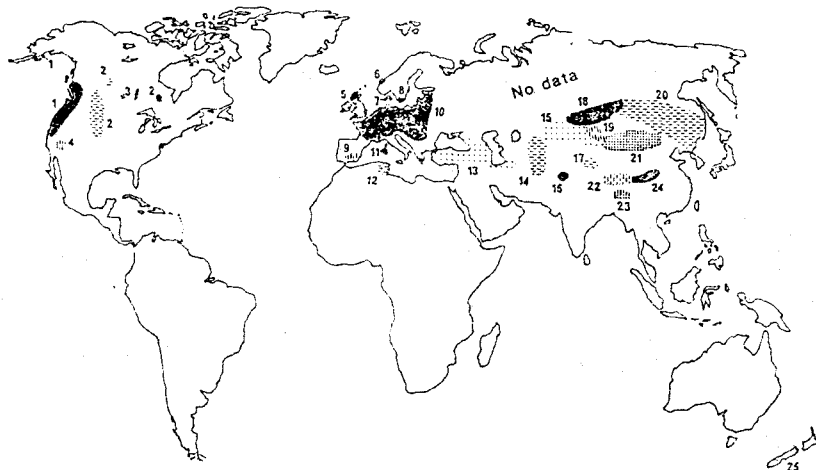
1997년의 농산물수입 완전자유화에 따라 다른 농업은 물론 우리 양육업도 상당한 타격을 보게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생사슴의 수입이 자유 화되어도 국내양육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견해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슴이 시세가 높게 형성된 상황하에서는 그 여파는 더욱 클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법으로 사슴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사슴을 수입할 수 있으며 사슴수입에 따른 관세율은 현재 15%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과 외국의 사슴가격에 비추어 생사슴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내로 반입될 때의 국내사슴가격의 폭락은 불과 몇년전에 겪었던 사슴가격의 폭락보다 더한 파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양육인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준비자세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여하 <그림1>엘크와 레드디어의 분포도

에 따라 양육업계가 부딪치게될 충격은 다 소나마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국의 양육의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서 우리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본인 자신도 이 지면을 통해 양육인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외국의 사슴 시세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었으며 또한 외국의 녹용생산량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량보다 적다고 왜곡되게 설명하여 왔었습니다. 이 것은 외국의 사슴시세나 녹용생산량이 사실대로 알려졌을 때에는 혹시나 사슴수입에 빌미를 주어 우리 양육인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는 본인의 좁은 편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전세계에 걸쳐 서식하는 엘크와 레드디어의 분포는<그림1>과 같은데 이 사슴들은



엘 크 : 1, 2, 3, 4, 15, 18, 19, 20, 21, 22, 24, 25

레드디어 :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23, 25

전대륙에 걸쳐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을 상업적으로 사육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다.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야생사슴은 순록, 무스, 엘크, 흰꼬리사슴(White-tailed deer) 및 노새사슴(Mule deer) 등이며 캐나다 대부분의 주(州)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주로 엘크이다. 그러나 태평양과 가장 인접해 있는 브리티시컬롬비아주에서는 레드디어도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몇년전에 세계 양륙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뉴질랜드인에 의해 약 4,000두의 엘크와 레드디어가 뉴질랜드로부터 이 곳으로 공수(空輸)되었는데 이러한 작업뒤에는 한국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소문이 세계양륙업계에 퍼져 있어 혹시 한국으로 도입키 위한 1차작업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편 이 곳 브리티시컬롬비아주의 양륙의 목적은 녹용생산과 녹육생산으로, 생산된 녹용은 주로 한국으로 수출하며 녹육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사슴의 가격은 다른주(州)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표1>과 같다.

<표1> 캐나다 각 주(州)의 엘크가격
(단위 : 캐나다\$)

	브리티시컬롬비아	엘 버 타	싸스카추완
성록송	5,000~6,000	10,000~12,000	7,000~9,000
우	3,500~4,000	5,500~7,500	6,000~7,000
새끼송		6,500~8,800	
		2,000~3,500	

※1캐나다\$=600원

엘버타는 4~5년전 미국으로 부터 엘크를 수입하여서 번식되어 1990년 5월현재 120개의 사슴농장에서 3,000두의 엘크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후 분만계절을 거쳐 현재는 두수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1>에서 보듯이 엘버타주의 사슴가격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이유는 다른 주는 사슴의 수입이 허용되지만 엘버타주는 사슴수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녹육은 거의 생산치않고 녹용만을 생산하여 한국, 홍콩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이 우수한 종목을 육성, 판매하고 있다.

엘버타주의 동쪽에 싸스카추완에는 현재 20여개의 농장에서 약 8,000두의 엘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슴가격이 엘버타주에 비해서는 싸지만 비교적 비싼 편이기 때문에 새로이 농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로 뉴질랜드로부터 사슴을 수입하여 양륙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곳의 양륙업은 녹용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량의 녹육을 생산하여 고급음식점에서 소비하고 있고 또한 종목을 생산하며 가죽과 송곳니 등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동부의 퀘벡 및 온타리오주에서도 양륙업이 활성화되어 녹용과 녹육을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의 각 농장은 엘크1두당 1에이커(약 1,200평)의 초지위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사료비는 <표2>와 같으며 평균 연 100불(캐나다\$)의 사료비가 소요된다.

〈표2〉캐나다의 엘크 두당 일일사료비
(캐나다\$)

	겨울	여름
송우	0.50	0.25
새끼	0.30	0.15
	0.36	0.18

캐나다에서 사육되는 엘크의 녹용생산량은 〈표3〉과 같은데 이와같은 생산량은 낙각후 60일경에 절각한 녹용의 무게로 국내 엘크의 생산량과의 비교는 양록인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3〉캐나다의 엘크의 연령별 생녹용 생산량

연령(만)	녹용생산량	
	파운드(1b)	냥
2세	7	85
3세	10	121
4세	12	145
5세이상	16~18	194~218
총록	25~30	302~363



캐나다의 대부분의 농장은 각각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어 자기 농장에서 생산된 녹용은 생녹용상태로 보관후 녹용건조업자에게 판매하는데 판매가는 생녹용 1파운드당 75~80불 (1냥당 약 4,000원) 정도이다.

다음호에는 뉴질랜드의 양록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종해

◇지회소식◇

- 12/ 6 경북지회 제1회 양록세미나
- 12/14 전남, 광주 지회 결성총회
지회장 : 정이성, 부회장 : 김팔운, 장운중, 총무 : 양길섭
운영위원 : 정중호, 이충구, 임문규, 송경량, 문희남, 곽종섭, 박길수
- 1/9 경북지회 정기총회 지회장 : 안승명, 부회장 : 김덕규, 총무 : 김영석
운영위원 : 박진국, 조정래, 추영인, 권영근, 김영명
- 1/10 경남록우회 단합대회(회장 서병오)
- 2/28 대구지회총회(지회장 유재영) 및 사양관리 세미나 개최

- 강사 : 김찬규
- 3/ 5 부산지회총회 지회장 : 임문식
부회장 : 박한근, 오정일
총무 : 김영옥
- 3/ 6 경남지회결성총회
지회장 : 조철래, 부회장 : 이광현, 차남석
총무 : 이인식
운영위원 : 조대운, 황동섭, 황의록, 김영환
- 3/ 8 은양지회총회
지회장 : 성기용 부회장 : 김달순, 조병남
총무 : 강형식
- 3/15 인천지회총회 지회장 : 이종민
부회장 : 심의섭 운영위원 : 황경주
총무 : 김종수